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5. 4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전화번호	3441-0611
------	---------	-------	----------	------	-----------

제 목: 2007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11대책으로 급락했던 체감경기 통계적 반등 및 계절적 요인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가운데, 주택물량지수 침체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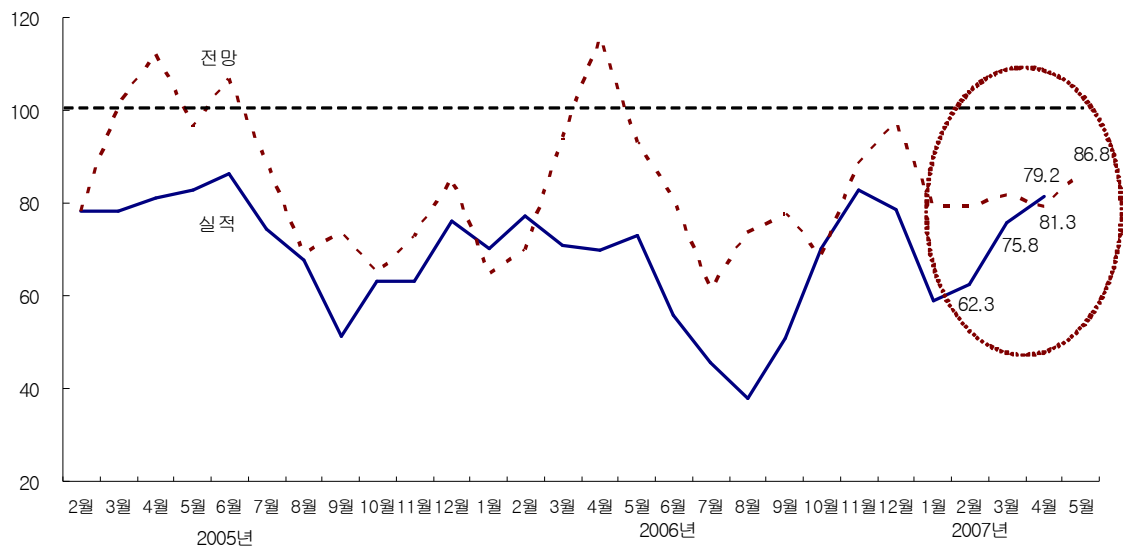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5.5p 상승한 81.3을 기록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침체 수준은 전월대비 소폭 개선
 - 지수가 2월(3.4p), 3월(13.4p)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해 작년 11월 수준(82.8)을 회복
 - 3개월 연속된 지수상승은 지난 1월 1.11대책으로 급락한 지수의 통계적 반등 및 봄철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결합된 현상으로 판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못 미쳐 체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업체 91.7, 중견업체 86.7, 그리고 중소기업체가 63.0을 기록해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및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 양극화도 여전
- 공사물량지수도 전월대비 5.7p 상승한 76.5를 기록해 체감경기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공사물량의 축소 수준도 전월보다 다소 개선
 - 공종별로 보면 토목이 73.5(전월비5.1p 상승), 주택이 60.0(1.8p 상승), 비주택이 83.0(12.0p 상승)을 기록해 1.11대책 이후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주택물량 축소는 계속해 심각(1월 42.1, 2월 60.4, 3월 58.8, 4월 60.6)
 - 대형, 중견업체 보다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고, 서울업체보다 지방업체의 물량지수가 더 많이 상승해 이들 업체들이 느끼는 물량 침체 수준은 개선됐으나, 지수자체는 여전히 60대에 불과
- 자금관련 지수,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지수가 많이 악화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지수는 각각 91.4, 94.3을 기록,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12.7, 108.8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 양호
 - 인건비 지수는 83.4를 기록하여 인건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자재비 지수가 전월(22.4p 하락)에 이어 5.5p 하락한 62.9를 기록하여 봄철 들어 계속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2007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11대책으로 급락했던 체감경기 통계적 반등 및 계절적 요인으로 어느 정도 회복 가운데, 중소기업체 및 지방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여전히 심각

- 2007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81.3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5.5p 상승함. 2월(3.4p), 3월(13.4p)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하여 지수 자체는 지난 11월 수준(82.8)을 회복함.
 - 이로써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전월대비 체감경기 침체의 수준은 다소 개선됐으며, 지수 상승은 통상 봄철에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못 미쳐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아직 좋지 않은 상황임.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업체 91.7, 중견업체 86.7, 그리고 중소기업체가 63.0을 기록함.

- 결국 대형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가운데 대형, 중견, 중소기업 모두 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못 미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아직 좋지 않은 상황임.
- 전월대비로는 대형업체가 7.1p 상승했고, 중견업체는 4.5p, 중소기업은 4.9p 상승함.
-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전월대비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체감경기의 침체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며,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 양극화도 여전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6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5.7	45.6	37.8	50.9	70.1	82.8	78.7	58.9	62.3	75.8	81.3	79.2	86.8
규모 별	대형	83.3	46.2	33.3	60.0	70.0	100.0	90.0	70.0	81.8	84.6	91.7	84.6	100.0
	중견	45.5	48.6	48.0	48.1	84.6	91.7	85.0	57.7	56.0	82.1	86.7	84.6	86.7
	중소	35.0	41.7	31.4	43.5	53.7	52.6	58.3	47.4	46.7	58.1	63.0	66.7	71.6
지역 별	서울	66.5	50.2	33.4	58.0	71.5	89.9	82.1	67.4	72.0	89.4	89.4	86.0	97.4
	지방	39.9	38.5	45.0	40.0	67.7	67.7	71.8	42.6	45.9	52.8	71.3	67.5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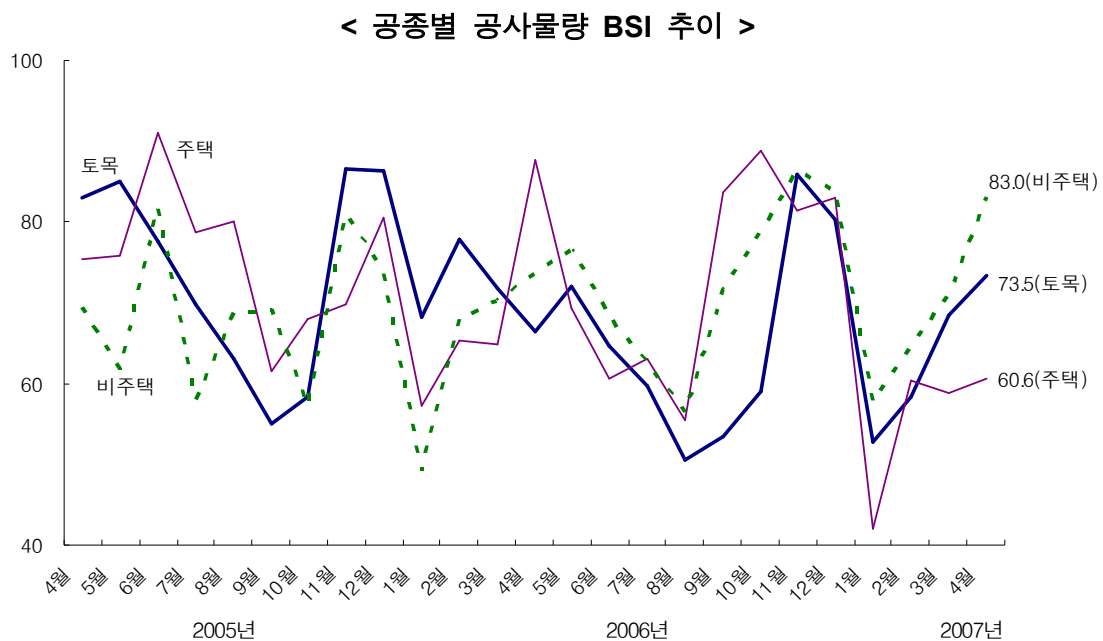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89.4, 71.3을 기록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과 동일했으며,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18.5p 상승함.
 - 지방업체는 지수 자체가 아직 70을 갓 넘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월 대비 지수가 많이 상승함으로써 체감경기 침체의 폭은 많이 줄어들었.
 - 이로써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간의 체감경기 양극화는 전월보다 개선됨.
- 2007년 5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86.8을 기록함.
 - 4월 실적 지수보다 5.6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침체의 폭이

좀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 업체는 100.0, 중견업체는 86.7으로 전망했으며, 중소기업체는 71.6으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도 전월대비 5.7p 상승한 76.5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물량 지수 침체 지속

- 2007년 4월 공사물량지수는 76.5를 기록했다.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5.7p 상승했음.
- 이로써 체감경기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전월대비 공사 물량의 감소 폭도 전월보다 다소 완화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친 70대에 불과해 건설업체이 느끼는 물량부족 현상은 아직도 크게 좋아지지 않은 상황임.



- 공종별로 보면 토목 73.5, 주택 60.0, 비주택 83.0을 기록하여 주택물량에 대한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물량축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큼.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6.5	91.7	71.4	64.6	86.8	62.1
	전망	88.3	100.0	89.3	73.3	99.2	71.9
토목	실적	73.5	75.0	85.7	57.7	79.6	65.9
	전망	81.9	100.0	71.4	72.5	92.5	66.1
주택	실적	60.6	58.3	76.9	44.6	63.3	57.0
	전망	61.3	58.3	70.4	54.5	63.8	57.8
비주택	실적	83.0	100.0	80.8	65.7	97.7	61.4
	전망	82.4	91.7	84.6	69.0	91.2	69.8

주 : 실적은 2007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5월 예측지수임.

- 업체 규모별 공사물량지수는 대형업체 91.7, 중견업체 71.4, 중소기업체 64.6을 기록함.
 - 전월대비로는 대형업체가 5.7p 상승하고, 중견업체는 1.0p 하락했으며, 중소기업체는 11.7p 상승함.
 - 중소기업체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가장 많이 상승함으로써 중소기업체가 느끼는 전월대비 공사물량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개선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 자체는 가장 낮은 60대에 불과해 중소기업체들이 느끼는 전월대비 물량축소의 수준은 여전히 가장 큼.
- 지역별로도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1.0p 상승한 86.8, 지방업체가 전월보다 17.0p 상승한 62.1을 기록하여 지방 소재 업체가 전체 공사물량지수 상승을 주도했으나, 지방업체의 물량지수는 여전히 60대 초반에 불과하

여 지방업체들이 느끼는 전월대비 물량축소의 수준은 여전히 훨씬 더 큼.

- 2007년 5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8.3을 기록하여 4월보다는 전월대비 공사물량 감소의 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 양호,
자재비 지수 많이 악화**

- 공사대금수급지수 및 자금조달지수는 전월에 비해 각각 0.5p, 2.0p 상승한 91.4, 94.3을 기록하였으나, 지수 자체는 아직도 기준선인 100에는 조금 못 미쳐 자금 관련 상황을 그다지 좋게 느끼고 있진 않음.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91.4	100.0	86.7	86.7	93.0	89.3
		전망	94.0	100.0	90.0	91.4	96.9	90.0
	자금조달	실적	94.3	116.7	86.7	76.8	106.5	77.5
		전망	98.0	116.7	93.3	81.5	110.5	80.9
인력	수급	실적	112.7	116.7	113.3	107.3	116.0	108.1
		전망	110.5	116.7	110.0	103.8	114.6	104.6
	인건비	실적	83.4	83.3	83.3	83.5	81.5	86.1
		전망	88.6	100.0	83.3	81.3	91.0	85.3
자재	수급	실적	108.8	116.7	100.0	109.8	112.6	103.5
		전망	105.9	116.7	96.7	103.8	110.7	99.1
	비용	실적	62.9	83.3	50.0	53.7	70.0	53.1
		전망	71.2	100.0	55.2	55.6	81.2	57.3

주 : 실적은 2007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5월 예측지수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역시 대형업체의 자금관련 지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소기업체의 자금관련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12.7, 108.8을 기록하여 인력과 자재수급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지수는 83.4를 기록하여 인건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재비지수는 전월대비 5.5p 하락한 62.9를 기록하여 계속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